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역량 진단도구 개발

- 한국농수산대학 사례 -

안진선^a · 한면택^b · 이민수^{c*}

^a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b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박사과정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c한국농수산대학 교양공통학과 조교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llegiate Accommodation Competency

- Case of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y -

Jinseon An^a · Myeon-Taek Han^b · Minsoo Lee^c

^aPh.D.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gjudaehak-ro, Gongju-si, KOREA)

^bPh.D. Candidate, Department of Counselling, PyeongTaek Univeristy (111 Yongyi-dong, Pyeongtaek-si, KOREA)

^cAssistant Professor,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y (1515 Kongjwipatjwi-ro, Jeonju-si,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 to develop and validate accommodation competency assessment for college students that reflected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agricultural college in South Korea.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firstly, scale for developing collegiate accommodation competency assessment and secondly we also modify of items based on pilot test results was implemen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the development cases of accommodation competency assessment of other college and universities, 3 accommodation competency areas that matched the students of the agricultural college were selected. 3 accommodation competencies such as self leadership, ego-resiliency, interpersonal relation, career preparation were derived as competencies. The developed assessment was pre-tested with 915 students and analyz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test empiricall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llegiate accommodation competency assessment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some what satisfactory.

Key words: competency assessment, accommodation, competency improvement, evaluation indicator

1. 서론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농업·농촌의 인력감소와 더불어 노령화를 초래하였고, 1993년 우르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의 타결과 회원국 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협정을 관리 감독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활성화로, 농업분야도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발전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력 육성이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9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현장중심교육을

주요어: 역량평가, 적응, 역량강화, 평가지표

* 교신저자(이민수) 전화: 063-238-9310; e-mail: minsoo@af.ac.kr

실시할 순수한 농업대학의 설립 건의에 따라 1997년 3월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한국농업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은 농업·농촌 발전을 주도할 투철한 직업의식과 현장 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두루 갖춘 미래 농업 CEO 양성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논의가 각 분야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논의가 이르는 실천적 함의는 사람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귀결되었으며, 대학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7년 대학생 핵심역량 선정 및 문항 개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각 대학에서는 ACE 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 특성에 맞는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재학 중 학생들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각 핵심역량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교과과정에 적용하는 진단평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WTO 출범으로 경제적 국경이 사라져가는 이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국가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데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를 만들고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핵심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아직은 모호하지만,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진미석, 이수영, & 채창균 et al., 2014; NCS 직업기초능력, 2017; McClelland, 1973; 1993; SCANS, 1991; UNESCO, 2015).

한국농수산대학은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미래농업 CEO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90% 이상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도 졸업 후 타 대학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한국농수산대학생의 졸업생은 일반 타 대학생들과는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된다. 즉,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한국농수산대학생은 기업(농어업)을 이어받아 이를 계승발전하거나, 제조업, 서비스업과 농수산업이 복합된 6차 산업으로서 변모를 꾀하거나, 혹은 새롭게 창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점은 그들이 졸업 후 사회를

접했을 때, 일반대학 졸업생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 대학교나 전문대생들은 졸업 후 진로진출을 대부분 취업에 두고 있으나, 한국농수산대학생들은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과는 달리 지역사회에서의 농어업 경영의 길을 가이만 한다. 일반적 취업의 경우 조직 내에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정해져 있고, 위계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곧바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후 곧바로 전국 각 지역의 농어업 현장에서 농어업 CEO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해당 업무에서 스스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영농기반이 없는 창업농의 경우,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여 졸업 후 영농정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사회 안착은 졸업생 개인의 삶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수단의 성공의 의미도 함께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국농수산대학생의 졸업 후 성공적인 지역 사회에서의 안착을 위해서는 대학생생활과정에서의 적응역량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졸업 후 영농영역 현장에서의 적응역량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효과적으로 영농영역 CEO로서의 안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역량 내용과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부터 시작된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은 현재 교육부에서 실행하는 ACE사업을 통해 각 대학마다 대학특성에 맞는 핵심역량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 후 선택을 통한 일반적 취업으로써의 진로선택이 아닌, 졸업 후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농수산대학생들은 핵심역량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타 대학 졸업생과는 근본적 차이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한국농수산대학생의 핵심역량 중 적응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대학생활 적응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는 대부분 아래의 두 가지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서 개발한 생애능력 연구이다(유현숙, 김남희, & 김안나 et al., 2002). 생애능력 연구에서는 생애능력을 ‘생애를 통하여 육성시켜주어야 할 핵심능력’으로 정의한다. 생애능력은 기초문해력(읽기, 쓰기 셈하기), 핵심능력(기본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수적 능력; 예,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협동능력), 시민의식, 직업특수능력 등 4가지로 구성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으로 전공지식,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학습능력, 리더십, 문제해결력 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직업기초능력 연구이다(진미석, 이수영, 채창균 et al., 2007). 이 연구에서 진미석 등(2007)은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으로 인지적영역(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 및 활용 능력,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과 비인지적 영역(대인관계 및 협동능력, 자기관리능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통해 대학생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가 개발되었다. K-CESA는 개념적 수준의 논의를 벗어나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핵심역량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분기 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김희연, 민경석, & 정지영, 2018).

K-CESA에 기반하여 국내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대학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노윤신 & 이상섭, 2013). 가장 대표적 진단도구로는 숙명여자대학교의 SM-CLA(Sookmyung-Collegiate Learning Assessment), 성균관대학교의 SCCA(Sungkyun Core Competencies Assessment), 건양대학교의 핵심역량진단 평가, 한양대의 HY-CCA이다.

K-CESA는 전국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과 산업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핵심역량을 제시한 반면, 개별 대학은 각 대학의 교육 목표와 지향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역량지표를 설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공통적인 핵심역량은 대체적으로 K-CESA의 역량지표(특히 의사소통, 글로벌, 종합적 사고력, 대인관계 역량)로 모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에 있어서 핵심역량은 졸업 후 진로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일반 대학생이 가지는 핵심역량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핵심역량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재학생 20명, 졸업생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접지는 교육학과 박사 수료 대상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방법은 1:1 대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사전 교육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한국농수산대학의 특성, 인터뷰 방법 등을 익힌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재학생에 대한 입학동기부터 졸업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등 총 26가지였다. 인터뷰의 모든 내용을 전사한 후 개방코딩을 통하여 생각과 사고 및 의미가 드러나도록 작업을 실시한 후, 축코딩을 통해 개방코딩을 통해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 하는 과정을 통하여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연결시켜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졸업 후 각자 처한 환경에 곧바로 적응하여 농어업경영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은 졸업 후, 개인 각각의 특수하고 다양한 환경인 지역사회에 진출하여 외부 및 내적자아와의 갈등 상황 없이 곧바로 적응하여 재학 중 수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영농영어CEO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 판단하여 최종 도출된 역량은 자기지도력, 자이타력성, 대인관계, 진로준비이다.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역량별 개념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2.2. 핵심역량 개념

2.2.1. 자기지도력

자기지도력(self leadership)은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으로, 효과적 행동을 위해 행동적 전략과 효과적인 사고와 태도를 위한 인지적 전략을 이용하여 스스로 리드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과정이다(Manz, 1986). Manz(1986)는 자기지도력의 구성요소가 효과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행위전략과 효과적인 사고와 태도에 초점을 맞춘 인지전략으로 두 가지를 분류하였다. 행동적 전략은 행동 지향적 전략과 자연적 보상 전략으로 구분되고, 인지적 전략은 건설적 사고 전략으로 구분된다.

리더십의 행위전략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고, 그들이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인식하여, 성공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자기지도력은 주로 행동전략의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의 인식과 처리하는 방식이 자기지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인지전략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Neck, & Houghton,

2006; Stewart, Courtright, & Manz, 2011).

2.2.2. 자이탄력성

자이탄력성의 의미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자이탄력성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자인 Gamezy(1971, 1993)는 자이탄력성을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 등 심리적 위협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이전의 자이탄제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Block, & Block(2006)은 상황적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적응능력이라고 보았으며, Block, & Kremen(1996)은 상황적 요구에 따라 자이탄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의 자이탄력성 의미를 종합해보면 자이탄력성은 ‘자신을 잘 조절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능력을 활용하여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이탄력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자기표현 기술 등 이 있고, 자이탄력성이 높으면 타인과의 관계 나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Block, & Kremen, 1996). 자이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민 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새로운 경험에 개방 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며, 높은 자신감과 심리적 적응력을 보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라 자이탄제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Block, & Kremen, 1996). 따라서, 자이탄력성은 대학생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을 막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2.3. 대인관계역량

학자들은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를 다양한 관점에 따라 그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Swensen(1973)은 대인관계란 “한 인간으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생존하며 건전한 성격을 완성해나가기 위해 타인들과 상호작용 하는 관계”라고 하였다. Wish, Deutsch, & Kaplan(1976)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란 포괄적관계가 아닌 개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생각, 느낌, 행동과 또 어떻게 생각하기를 기대하는가 등 개인 대 개인의 관계형성을 말한다. Heider(1958)는 다른 사람을 대 할 때의 생각이나 지각, 느낌과 그로 인한 행동의 표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생각이나 행동, 더 나아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한 것을 말한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는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개인의 삶과 발달에 근원이 되며 원만한 집단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인관계역량(interpersonal relationship capacity)이란 상호 작용의 근간으로 두 사람 이상과 인간관계를 무난하고 성숙하게 이끌어 나감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맺어나가는 능력이다(박선영, & 권석만, 2012). 이는 특정 영역만이 아니라 대인 긴장이나 자기표현, 세심함, 자기주장, 주도성, 규범준수, 역지사지, 온정 등 다양한 영역의 능력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상호작용에 의해 개발되는 능력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개인적인 유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반야, 2015).

이처럼 대인관계능력은 단순히 의사소통능력이 유능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타인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종합적인 넓은 의미의 조절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김반야, 2015; 최송미, & 연문희, 2005). 즉, 대인관계능력은 소속 집단 내 구성원이나 집단 외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갈등 완화나 의사소통, 원만한 대인관계 과정 등을 무난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인 능력이다.

2.2.4. 진로준비역량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를 생각하거나 정보를 알아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 & 김계현(1997)에 의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정보수집행동은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등과 같은 관련한 정보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의 현황, 취업방법, 작업환경 등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합리적, 효율적인 행동을 말한다. 둘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자 자기가 목표한 직업에 대한 준비과정인 도구준비행동이다.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필요에 의해 준비하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의 취득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달성행동이다. 이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상호작용,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 등의 투자를 의미한다.

김봉환, & 김계현(1997)에 의해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척도개발 및 개념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에 관한 연구들이 그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이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등 유사개념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봉환, & 김계현, 1997; 김혜경, & 장진경, 2017; 손은령, & 손진희, 2005; 정인호, & 임병철, 2012)

대학교에서 결정하는 진로는 단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준비해야 하며,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구체적인 목표에 맞게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향후 직업적 성취와 생애 전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는 전주에 있는 H 대학교 재학생이다. 재학생 중 1년 동안 전원 국내외 현장실습을 하는 2학년을 제외한 1학년과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에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주간에 걸쳐 수업시작 전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직접 설명하고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930명이 응답하였고 누락응답, 일련번호 기입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15개의 조사표를 제외한 915개의 조사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성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학년	427	90	517
	82.6%	17.4%	100.0%
3학년	317	81	398
	79.6%	20.4%	100.0%

3.2. 문항 개발

참여자들의 자기지도력을 측정하기 위해 Houghton, & Neck (2002)이 개발하고, 김보경, & 정철영(2012)과 이종찬, & 홍아정(2013)이 국내 연구에서 보완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기초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RSLQ는 총 35문항으로 자기보고식 Likert 5점 척도이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하위척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지향행동 18문항, 자기질책행동 5문항, 건설적사고유형 전략 12문항이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lohnen(1996)의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가 제시한 문항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박현진(1996)과 박옥숙(2011)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감 9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낙관적 태도 10문항, 분노 조절 2문항의 총 29문항이다. 이들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chlien, Guerny, & Staver(1971)의 인간관계 척도를 전석균(1994)이 수정·보완한 대인관계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7문항, 집단내 대인관계 7문항, 일반적 대인관계 6문항이다. 이들 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항목 11개 문항, 부정적인 항목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 & 김계현(1997)이 개발한 척도를 기본으로 이명숙(2002)이 추가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진로준비행동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3개 영역의 18개 문항이며, 진로정보탐색 6문항, 진로준비행동 5문항, 진로목표행동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예비문항은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교육학 박사 3명, 국문학 전공자 1명)에 의한 1차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내용타당도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응답자들에게 측정항목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사전검증을 통하여 응답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은 수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측정 항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역량개발 진단도구 문항 수

영역	하위요인	문항 수
자기지도력	목표지향행동	18
	자기질책행동	5
	건설적사고전략	12
자아탄력성	자신감	9
	대인관계효율성	8
	낙관적태도	10
	분노조절	2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	7
	집단내 대인관계	7
	일반적 대인관계	6
진로준비행동	진로정보탐색	6
	진로준비행동	5
	진로목표행동	7

3.3. 분석방법

본조사의 자료 분석은 예비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항 분석, 신뢰도 분석,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조사에서는 영역별로 구성된 문항들이 구성요인의 하위요인으로 적절히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고, 자료의 처리와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SPSS 20.0을 활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모수 추정을 위하여 Mplus 7.0(Muthén, & Muthén, 2012)을 사용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 통계치와 더불어 대안적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4. 연구결과

4.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개발된 자기지도력 35문항, 자아탄력성 29문항, 대인관계능력 20문항, 진로준비행동 18 문항 각각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제거할 수 있는 부적절한 설문문항을 검토하고, 구성개념과 설문문항들의 관계를 조사하여 잠재변수(latent variable)를 파악하는 통계적 기법이다(Netemeyer, Bearden, & Sharma, 2003).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요인회전 방법은 자연계열연구가 아닌 사회계열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사교법(Direct Oblimin)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의 값이 .4 이상인 값을 요인추출 기준으로 선정하였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자기지도력 35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통성 .4이하인 문항(문항6, 7, 8, 13, 14, 15, 34)은 삭제되었다. 최종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총 28문항이 선택되었다. <표 3>은 자기지도력 영역의 요인 1(건설적사고전략), 요인 2(자기질책행동), 요인 3(목표지향행동)의 요인성분 값을 나타낸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3까지 누적된 분산의 양은 53.71%로서 자기지도력 영역의 3가지 요인은 문항들의 총 변화량의 53.71%를 설명해 준다.

자아탄력성 29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통성 .4이하인 문항(문항1, 2, 3, 4, 18, 20, 28, 29)은 삭제되었다. 최종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총 21문항이 선택되었다. 이론적으로 구분된 영역 중 ‘분노조절’과 ‘낙관성’은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었으며, ‘자신감’과 ‘대인관계효율’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었다. <표 4>는 자아탄력성 영역의 요인 1(낙관성), 요인 2(자신감 및 대인관계효율)의 요인성분 값을 나타낸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2까지 누적된 분산의 양은 65.18%로서 자아탄력성 영역의 2가지 요인은 문항들의 총 변화량의 65.18%를 설명해 준다.

대인관계능력 20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통성 .4이하인 문항(문항14, 15, 17, 20)은 삭제되었다. 최종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총 16문항이 선택되었다. <표 5>는 대인관계능력 영역의 요인 1(의사소통), 요인 2(일반적대인관계)의 요인3(집단내대인관계)의 요인성분 값을 나타낸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3까지 누적된 분산의 양은 60.55%로서 자아탄력성 영역의 3가지 요인은 문항들의 총 변화량의 60.55%를 설명해 준다.

진로준비행동 18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통성 .4이하인 문항(문항 7, 10, 11, 16)은 삭제되었다. 최종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총 14문항이 선택되었다. <표 6>은 진로준비행동 영역의 요인 1(진로정보탐색), 요인 2(진로목표행동)의 요인3(진로준비행동)의 요인성분 값을 나타낸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3까지 누적된 분산의 양은 62.71%로서 진로준비행동 영역의 3가지 요인은 문항들의 총 변화량의 61.71%를 설명해 준다.

4.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자기지

〈표 3〉 자기지도력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지도30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가정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한다.	.924		
지도31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을 찾아 일을 끝낸다.	.917		
지도29	일하기 전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스스로 시각화한다.	.860		
지도32	나는 실제로 일하기 전에 성공적 수행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703		
지도33	나는 의도적으로 직면한 도전들을 극복하는 것을 시각화한다.	.639		
지도28	나는 실제로 도전에 직면하기 전에 종종 도전에 대처하려고 계획한 방안을 마음속으로 시연해본다.	.619		
지도25	때로 나는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또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곤 한다.	.608		
지도27	때로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큰 소리로 또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한다.	.587		
지도24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한다.	.587		
지도26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의 신념과 가정에 대해 생각한다.	.579		
지도20	나는 내가 직면한 문제의 상황과 관련해서 내 자신의 신념에 대한 정확성을 마음속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한다.	.568		
지도35	선택권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대충 일을 끝내기 보다는 즐겁게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566		
지도19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것이라는 생각을 종종한다.	.467		
지도22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난 뒤를 종종 생각한다.	.446		
지도21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431		
지도23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나 말을 해본다.	.407		
지도11	불완전한 성과를 냈을 때, 나는 낙심하는 경향이 있다.		.841	
지도9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나 자신에게 혹독한 경향이 있다.		.818	
지도12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나는 자책감을 느낀다.		.806	
지도10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나는 때로 공공연하게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다.		.781	
지도1	나는 나 자신의 성취를 위해 특정한 목표를 정한다.			.821
지도2	나는 작업의 성과를 위해 목표를 의식적으로 정한다.			.819
지도3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세운 특정한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			.796
지도4	나는 미래에 성취하려고 계획한 목표에 대해 생각한다.			.765
지도5	나는 나 자신의 성취를 위한 특정한 목표들을 적는다.			.706
지도18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상황을 나는 알고 있다.			.656
지도17	나는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것을 상기하기 위해 기록한 메모를 활용한다.			.589
지도16	나는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것들을 활용한다(메모와 체크리스트).			.426
	고유값	10.12	2.94	1.98
	설명분산	36.13	10.49	7.09
	누적분산	36.13	46.62	53.71

KMO = 0.92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 15299.6(df=378 Sig=.000)

도력,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능력, 진로준비행동의 영역별 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측정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적합도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χ^2 지수와 함께 증분 부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상대적 적합도 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절대 적합도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s)의 4가지 지수를 사용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표 7>과 같다.

χ^2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χ^2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 값이 5 이상이면 모델이 표본행렬에 잘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1~3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 이하이면 모델이 과대적합되었음을 의미한다. GFI(goodness-of-fit-index)는 표본행렬과 예측행렬 간의 잔차지승합의 비율에 기초한 지수로 0.9 이상일 때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 TLI(Tucker-Lewis index)는 영요인모형(zero factor model)에 비해 제안모델의 개선정도를 계량화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로 0.95 이상이 권장 수준이다. 표준화 RMR(SRMR)은 잔차의 평균을 표준화한 값으로 0.08 이하일 경우 모델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RMSEA 값은 .05 이하일 때는 ‘매우 좋음’으로, .05~.08일 경우에는 양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백순근, 신안나, 김연경, 손주영, & 윤승혜, 2017; 홍세희, 2000).

〈표 4〉 자아탄력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문항내용	요인 1	요인 2
탄력25	일주일에도 몇 번씩이나 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918	
탄력27	종종 내 삶은 무의미한 것 같다.	.859	
탄력1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858	
탄력14	나는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했다.	.824	
탄력5	나는 종종 쓸데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짜증이 난다	.819	
탄력26	내가 보기에 미래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793	
탄력8	나는 세상이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자주 든다.	.762	
탄력24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685	
탄력15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	.562	
탄력21	확실히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가끔 든다.	.532	
탄력23	때로 나는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446	
탄력9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432	
탄력7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899
탄력16	낯선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어렵다.		.871
탄력17	누군가에게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몹시 힘들다.		.844
탄력22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836
탄력12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744
탄력11	나는 일이 잘 안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633	
탄력6	나는 수업 중에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	.572	
탄력13	나는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꺼려한다.	.528	
탄력10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혹스럽다.		.511
	고유값	12.02	1.67
	설명분산	57.24	7.95
	누적분산	57.24	65.18

KMO = 0.97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 14932.8(df=210 Sig=.000)

〈표 5〉 대인관계능력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문항 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대인4	나는 스스로 주위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한다	.808		
대인1	나는 동료와 의사소통을 잘 한다.	.709		
대인16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잘 건다.	.706		
대인6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 잘할 수 있다.	.688		
대인2	나는 모든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585		
대인19	나는 질문에 정확히, 적절히 대답을 잘 할수가 없다.		.791	
대인13	다른 사람들은 나와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778	
대인8	나는 집단에 잘 적응할 수 없다.		.761	
대인7	나는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는 편이다.		.757	
대인5	나는 집단 내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고 고립적이다		.717	
대인18	나는 일상생활에서 따분하고 지루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700	
대인12	나는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 외로움을 느낀다		.618	
대인9	나는 가족과 적당한 의사소통을 잘 한다.			.893
대인3	나는 가족과 관계가 좋은 편이다.			.778
대인10	나는 집단 내의 다른 사람을 기꺼이 잘 돕는 편이다.			.654
대인11	나는 집단 내의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인사말 을 사용해서 잘 인사한다			.486
	고유값	6.08	2.29	1.31
	설명분산	38.02	14.33	8.20
	누적분산	38.02	52.35	60.55

KMO = 0.88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 6860.3(df=120 Sig=.000)

〈표 6〉 진로준비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문항 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진로1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876		
진로1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관,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안내 책자나 팸플릿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798		
진로18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747		
진로17	나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718		
진로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취업 관련 부서나 상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863	
진로8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825	
진로12	나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로)에 입문하기 위해 학원 등에 다니면서 진로 준비를 하고 있다.		-.741	
진로13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정보,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415	
진로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820
진로1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795
진로4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632
진로6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616
진로5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564
진로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에 직접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449
	고유값	5.99	1.68	1.11
	설명분산	42.81	11.99	7.90
	누적분산	42.81	54.81	62.71

KMO = 0.88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 6021.4(df=91 Sig=.000)

〈표 7〉 핵심역량 진단도구 측정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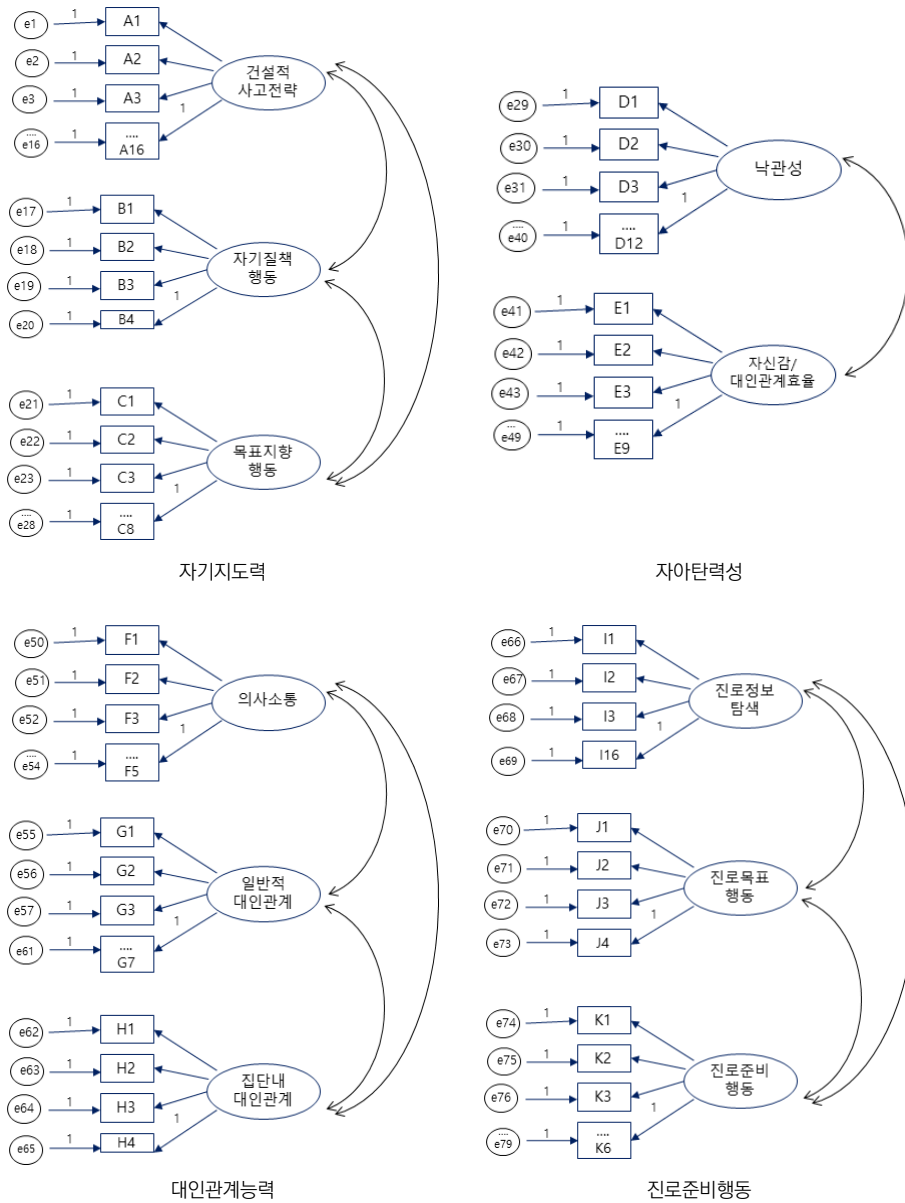
구분	$\chi^2(df)$	χ^2/df	GFI	TLI	SRMR	RMSEA (%CI)	제거변인
자기지도력	661.2(206)	3.2	.970	.977	.048	.050	지도5, 10, 16, 19, 21, 23
자아탄력성	583.6(118)	4.9	.969	.975	.026	.066	탄력12, 14, 15, 21
대인관계능력	169.3(51)	3.3	.994	.988	.015	.051	대인6, 12, 16, 18
진로준비행동	143.9(41)	3.5	.998	.991	.006	.052	진로2, 6, 9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이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일부 관측변인을 제거하였다. 첫째 표준화회귀계수 값이 0.7 이하인 경우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변인이므로 제거하였다. 둘째,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은 0.5 이상이 되어야 관측변수가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0.5 이하인 변인은 제거하였다. 신뢰도가 낮은 변인을 제거한 후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df 값은 모두 3~5사이의 값으로 모형적합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GFI와 TLI의 경우는 모든 모형에서 .95 이상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RMR의 경우도 모든 모형이 0.08 이하로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 값의 경우도 자기지도력, 대인관

계능력, 진로준비행동은 0.5 수준으로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경우도 0.66으로 모형이 양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신뢰도 검증

〈표 8〉은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구성요인별 문항 수와 Cronbach's α 값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지도력 영역 중 목표지향행동 16문항의 신뢰도 값은 .920, 자기질책행동은 .858, 건설적 사고전략은 .805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영역 중 낙관적태도 12문항의 신뢰도 값은 .944, 자심감은 .933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 영역 중 의사소통은 .832, 집단내 대인관계는 .853,



〈그림 1〉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영역별 측정모형

〈표 8〉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구성요인별 신뢰도

영역	구성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자가지도력	목표지향행동	16	.920
	자기질책행동	4	.858
	건설적사고전략	8	.805
자아탄력성	낙관적태도	12	.944
	자신감/대인관계효율성	9	.933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	7	.832
	집단내 대인관계	7	.853
	일반적 대인관계	6	.812
진로준비행동	진로정보탐색	6	.859
	진로준비행동	5	.796
	진로목표행동	7	.823

일반적 대인관계는 .81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구성요인별 신뢰도는 .79 ~.94로 나타나, 문항들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검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농수산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역량을 측정하는 도구

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적응역량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적응역량의 이론적 구성 요인을 자기지도력,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역량, 진로준비역량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 및 국문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예비조사를 통하여 응답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자기지도력 35문항, 자아탄력성 29문항, 대인관계역량 20문항, 진로준비역량 18문항 등 총 102개 문항을 제작하였다.

개발된 대학생활 적응역량 진단도구 문항에서 부적절한 문항을 검토하고, 구성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량 값이 낮은(0.4 이하) 문항을 제거하여 대학생활 적응역량 영역별 구성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기지도력은 3개 하위영역에 28문항, 자아탄력성 4개 하위영역에 21문항, 대인관계역량은 3개 하위영역에 20문항, 진로준비역량은 3개 하위영역에 18문항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추출된 4개 영역에서 자기지도력은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4개 요인은 자기지도력의 53.71%를 설명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2개 요인은 자아탄력성의 65.18%를 설명하고 있다. 대인관계역량은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3개 요인은 대인관계역량의 60.55%를 설명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3개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의 62.71%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진단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역량과 하위 영역의 Cronbach's α 와 계수가 .79 ~ .94 사이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었다.

내적타당도 확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이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일부 변인으므로 제거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의 경우도 χ^2/df 값은 모두 3~5사이의 값으로 모형적합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GFI와 TLI의 경우는 모든 모형에서 .95이상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RMR의 경우도 모든 모든 모형이 0.08이하로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단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문항의 경우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일부 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인재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학생활 적응역량지표의 구성적 측면과 재학생의 역량을 진단하여 향후 적응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합리적 인재 육성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조사에서 도출한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실제 활용가능한 표준도의 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역량 진단도구를 통해 학생은 적응역량에 대한 현 수준을 이해할 수 있고, 대학은 학생 개인의 대학생활 부적응 원인을 파악하여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도 방안과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시각적 프로파일은 활용한 표준도의 작성으로 학생과 학교는 효율적으로 본 진단도구의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적응역량 진단검사의 역량 평가 방식은 자기보고식 평정도구로, 개발된 진단도구의 결과는 실제 수행 능력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수행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학생 핵심역량 도구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K-CESA 진단 결과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진단도구와 유사한 K-CESA의 진단영역의 결과와 상비교를 수행할 경우, 본 진단도구의 신뢰성과 공인타당도는 높아질 것이다.

셋째, 재학생을 대상으로 적응역량 진단도구를 활용한 진단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 실시에 따른 문항의 노출과 재학생 역량수준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진단도구의 수정과 보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기반을 확보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진단도구가 되도록 문항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1. 김반야. (2015). 관계적 인간의 형성: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2. 김보경, & 정철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개인이 인식한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2), 49-71.

3. 김봉환, &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4. 김혜경, & 장진경. (2017).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과 진로의사결정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3), 25-40.
5. 김희연, 민경석, & 정지영. (2018). (r)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 12(3), 63-87.
6. 노윤신, & 리상섭. (2013). 대학생 역량진단 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D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HRD 연구*, 15(3), 273-305.
7. 박선영, & 권석만. (2012). 삶의 의미의 원천, 구조의 탐색 및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의 개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12(2), 199-224.
8. 박옥숙. (2011).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백순근, 신안나, 김연경, 손주영, & 윤승혜. (2017). 고등학생용 여섯 가지 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30(3), 363-395.
10. 손은령, &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11. 유현숙, 김남희, 김안나, 김태준, 이만희, & 장수명. (2002).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 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1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2. 이명숙. (200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 지각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이종찬, & 홍아정.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1), 69-92.
14. 전석균. (1994).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정인호, & 임병철.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경북 지역 치기공(학)과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3(3), 13-19.
16. 진미석, 이수영, 채창균, 유한구, 박천수, 이성, et al. (2007). *대학생 직업 기초 능력 선정 및 문항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17. 최송미, & 연문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유능성 구성요인 탐색과 유용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31-155.
18.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19. Block, J., & Block, J. H. (2006).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4), 315-327. <https://doi.org/10.1037/0003-066X.61.4.315>
20.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21.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https://doi.org/10.1037/0022-3514.55.6.991>
22. Garnezy, N. (1971). Vulnerability research and the issue of primary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1), 101-116. <https://doi.org/10.1111/j.1939-0025.1971.tb01111.x>
23.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1), 127-136. <https://doi.org/10.1080/00332747.1993.11024627>
24.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5.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26. Houghton, J. D., & Neck, C. P. (2002). The revised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https://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27.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https://doi.org/10.1037/0022-3514.70.5.1067>
28. Manz, C. 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https://doi.org/10.5465/amr.1986.4306232>
29. Neck, C. P., & Houghton, J. D. (2006). Two decades of self 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270-295. <https://doi.org/>

10.1108/02683940610663097

30. Netemeyer, R. G., Bearden, W. O., & Sharma, S. (2003). *Scaling procedures: Issues and applications*. New York: Sage Publications.
31. Schlein, S., Guernsey, B. G., & Staver, L.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32. Stewart, G. L., Courtright, S. H., & Manz, C. C. (2011). Self-leadership: A multi-level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7(1), 185-222. <https://doi.org/10.1177/0149206310383911>
33. Swensen, C. H. (1973). *Introduction to interpersonal relations*. Glenview, Illinois: Scott Foresman.
34. Wish, M., Deutsch, M., & Kaplan, S. J. (1976). Perceived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4), 409-420. <https://doi.org/10.1037/0022-3514.33.4.409>

Received 15 November 2020; Revised 05 December 2020; Accepted 17 December 2020



Mr. Jinseon An is a PhD Candidate at Department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self-leadership of college student and self-esteem
Address: #1515 Kongjwi-Patjwi-ro, Wansan-gu, Jeonju-si, 55068, Republic of Korea
E-mail: somsom1@korea.kr
phone: 82-63-238-9642



Mr. Han-myeon Taek is a PhD Candidate at Department of Counseling, Pyeongtaek University. He runs a synesthesia and He is also offering human-centered counseling in Boryeong to help people lead happy lives.
Address: Bonghwang-ro, Boryeong-si, Chungcheongnam-do 29
E-mail: mt-han@hanmail.net
phone: 82-41-933-5752



Dr. Minsoo Le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pollicy, and regional policy.
Address: #1515 Kongjwi-Patjwi-ro, Wansan-gu, Jeonju-si, 55068, Republic of Korea
E-mail: minsooo@af.ac.kr or minsooo.lee@gmail.com
phone: 82-63-238-9310